성인병 의약품 생산 지속적 증가

자양강장제 · 제산제 · 소화제 등은 감소

동맥경화용제, 항전간제(항경련제), 혈압강하제, 당뇨병용제 의약품의 생산증가 현상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반면 기타의자양강장변질제, 제산제, 백신류, 건위소화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다소 감소현상을 보였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발표한 '2004년 약효군별 생산실적'에 따르면 동맥경화용제 생산실적은 2002년 56.56%, 2003년 44.91% 증가한데 이어 2004년에도 49.51%(2911억원) 증가하는 고성장세를 유지했다.

같은 순환계계열의 혈압강하제도 2002년 20.55%, 2003년 10.17%, 2004년 31.87%(5303억원)의 생산증가율을 보였다.

당뇨병용제의 경우 2002년 38.74%, 2003년 23.64%, 2004년 26.29%(1958억원)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추신경계의 항전간제도 2002년 16.37%, 2003년 22.87%, 2004년 38.18%(1083억원)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약효군이다.

그러나 1000억원 이상 생산 약효군 중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는 -6.81%(2868억원), 제산제는 -1.11%(1686억원), 백신류는 -2.55%(1308억원), 건위소화제는 -0.83%(1053억원), 항히스타민제는 -7.70%(1002억원)를 기록했다.

상위 5대 약효군 생산액 순위는 지난해와 큰 변동 없이 항생제 약효군에 속한 '주로 그람양성 및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이 9751억원을 기록 전년에 이어 1위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열 진통 소염제가 6885억원으로 2위 △기타의순환계용약이 5685억원으로 3위 △혈압강하제가 5303억원으로 4위 △기타의화학요법제가 3516억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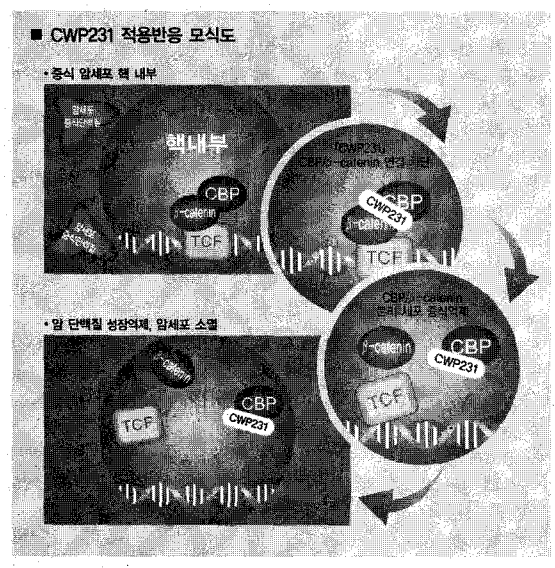
2003년 5위를 차지한 기타의자양강장변질제는 8위로 내려섰다.

중외제약, 세계최초 신개념 대장암치료제 개발

로슈그룹-추카이제약과 공동연구 착수

국내제약사가 개발 중인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가 향후 거대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글로벌 협력체계로 공동 개발된다.

중외제약(대표 이경하)과 로슈그룹인 추카이제약(대표 나카야마)은 20일 중외가 지난 2001년부터 개발해온 혁신적인 항암제 연구성과를 토대로 1차적으로 차세대 대장암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며, 중외가 이미 도출한 선도물질 군에서 최적화된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여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라이선스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로슈그룹인 추카이제약은 중외제약에게 신약개발 성과에 대한 초기기술료로 일정액을 지불하고, 임상후보물질이 도출되는 시점에서 추가의 기술료를 지불하기로 했으며 향후 글로벌 임상 및 제품화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국내제약사가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해 글로벌제약사가 초기기술료를 지불하고 공동 개발되는 사례는 업계 최초의 일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데, 이 같은 성과는 중외가 1990년대 초반부터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선진제약사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연구개발(R&D)의 글로벌화 전략과 기술력 제고에 따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외제약은 2001년부터 중앙연구소(소장 김학엽)와 미국 시애틀연구소(소장 마이클 칸)를 중심으로 200여억원을 투자하여 다수의 세포내 약물타겟 및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도출하였으며, 이들 후보물질 중 CWP231은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기존의 화학요법제와 차별화된 신개념 항암제로 현재 미국내 특허(2004.7)를 획득하고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에 출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WP231은 정상세포가 아닌 고형암세포와 백혈병내성세포 등에서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되는 단백질인 베타카테닌(β-Catenin)이 세포내 단백질인 CBP(Creb Binding Protein) 와 결합하여 암세포가 증식되는 과정을 선택적으로 차단해 주는 표적항암제로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은 없으면서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만을 효과적으로 억제, 사멸시켜 부작용과 내성발현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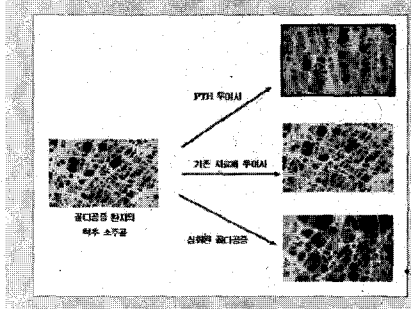
현재 1차적으로 대장암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우수한 효과가 입증됐으며, 이같은 성과는 PNAS, Oncogene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소개된 바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메커니즘은 이미 전 세계 학계에 공지된 사실이고 그동안 P사 등 글로벌 제약사에서 신약화를 위해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CBP와 베타카테닌(β-Catenin)을 차단하는 선도물질 개발과 실제 대장암에 대한 치료효과를 밝힌 예가 없어 금번 성과는 세계 최초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모든 암세포의 증식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장암은 물론 추가적인 약리연구에 의해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등 다른 난치성 암 치료제 개발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53만 명이 사망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노령화와 식이패턴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FDA의 신속처리프로그램 "Fast Track Program"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신약보다 빠른 속도로 출시가 가능하다.

녹십자 골다공증 신약 임상완료

유전자재조합기술 이용, 근본적 치료가능



손상된 뼈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새로운 차원의 골다공증 치료제가 국내 제약사에 의해 개발돼 상품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녹십자(대표 허일섭)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자체 개발한 골다공증 치료제 rhPTH(유전자재조합 부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제2상 임상시험을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녹십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에 따라 rhPTH에 대한 비임상과 제1상 임상시험을 각각 영국과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끝마친 데 이어, 이번 제2상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신약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제3상 임상시험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이번 임상에 총괄 책임자로 참여한 독일 하인리히-하이네 대학 의대 내분비학과의 베르너 알폰스 쉐어바움 교수는 "2001년 12월부터 3년 동안 독일,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의 16개 임상센터에서 166명의 폐경기 여성(폐경 후 5년 이상이 경과된 45~75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상 임상시험에서 rhPTH를 투여한 그룹이 위약(플라시보) 투여 그룹에 비해 5배 이상의 골밀도 증가를 보여 효능 효과면에서 통계학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임상시험 결과를 설명했다.

쉐어바움 교수는 "이상반응(부작용)에 대한 평가에서도 rhPTH 투여 그룹과 위약 투여 그룹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투여시에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로나민' 광고신뢰도 1위 품목

일동제약의 종합비타민제 '아로나민'이 한국소비자포럼과 한국마케팅연구원이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05년 한국 소비자의 광고 신뢰도 조사에서 종합비타민제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소비자의 광고 신뢰도 1위' 행사는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유발하여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광고를 선정, 시상하는 행사이다.

이번 광고 신뢰도 조사는 상공회의소, 통계청, 언론 매체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한 시장점유율, 광고 집행 실적, 홍보 및 보도 자료 등의 사전 기술 조사와 소비자 패널단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200개의 후보군을 우선 선발한 뒤, 한국소비자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5개 신뢰도 항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아로나민은 5점 만점에 3.91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비타민제 부문 1위로 선정되었다.

아로나민은 국내 종합비타민제 시장 부동의 1위 품목으로 40여 년간 사랑 받고 있는 장수의약품.

활성비타민의 뛰어난 약효를 통해 '국민영양제'로 자리 잡아왔으며, 최근에는 고객 만족과 브랜드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아로나민아이즈, 아로나민이에프, 아로나민씨플러스 등 아로나민골드의 뒤를 잇는 시리즈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김기수 선수 타이틀 매치', '의지의 한국인 시리즈', '체력은 국력', '건강이 재산입니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꾸준한 광고 마케팅 활동을 통해 두터운 고객의 신뢰를 쌓아온 제품이다.